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News & Highlights from the AMCHAM Members

2nd Quarter 2017

2017년 2분기 암참 회원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소식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ews & Highlights from AMCHAM Members

Please read below to see how AMCHAM members gave back to communities in Korea in the first quarter of 2017.

Amway Korea 한국암웨이



On February 6, Amway Korea celebrated the completion of its “Creativity Class” project at Samyang Elementary School. The “Creativity Class” is a part of “Thinking Frog,” a representative program dedicated to fostering creative minds and has collaborated with the Haja Center since 2012. After signing an MOU with Samyang Elementary School last year, students explored and created the space with professional teachers in this class which consisted of a regular curriculum. Afterwards, the students transformed a space in the school where could play freely and relax. Amway Korea plans to expand this project to two other elementary schools this year and hopes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view the world with a more creative perspective.

Contact | Jieun Kim
jjeun_kim@amway.com

지난 2월 6일, 한국암웨이는 서울 삼양초등학교에서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완공식을 진행했다. ‘움직이는 창의클래스’는 2012년부터 하자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창의인재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학교의 공간을 바꾸는 디자인·건축 프로젝트다. 지난해 삼양초등학교와 MOU체결 후, 정규수업으로 편성된 창의클래스를 통해 아이들은 전문가들과 학교 내 유휴공간을 다니며 맘껏 뛰어 놀고 쉴 수 있는 창의공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옥상 앞 공간, 텃밭 및 뒤뜰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한국암웨이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올해 총 2개교로 창의클래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자 | 김지은
jjeun_kim@amway.com

Bae, Kim & Lee LLC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Dasom Naru,” a charity club comprised of twelve attorney and staff members from Bae, Kim & Lee LLC since 2008, volunteered their services at an infant orphanage in Uijeongbu on March 4th. Led by Partner Choi Seung-jin, Dasom Naru cleaned and repaired the facilities at the orphanage. “Since the staff here do so much, especially with so many infants, we feel this is something we can do to help,” said a member of the club. In addition to volunteering on the first Saturday of every month, Dasom Naru also makes monthly in-kind donations to Aeranwon, a single mothers’ support center.

Contact | Jihee HAN
jhhan@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전문가 및 직원들의 봉사동호회 ‘다솜나무’가 지난 3월 4일 서울 의정부에 위치한 영아원에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다솜나무’는 2008년 창단 이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본 시설을 방문하며, 이번 봉사에도 최승진 변호사 및 11명의 법인 구성원들이 청소·수리 등 시설 관리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 중 한 명은 “평소에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하는 분들이 관리하시기 어려운 시설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솜나무’는 매달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에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담당자 | 한지희
jhhan@bkl.co.kr

BMW Group Korea BMW 그룹 코리아



**BMW
GROUP**
Korea



On January 17, the BMW Korea Future Fund hosted a three-day basic training program for student participants of its “4th annual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BMW Basic training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students to search and design their career last year. The “Young Engineer Dream Project” is a year-long mentoring program where technical specialists of BMW Group Korea offer monthly career advice to students from low-income, single parent or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addition to the basic training program, the project also coordinates a motor show visit and field trip to the BMW factory for the students. Since its launch in November 2013, a total of 48 mentors and 131 mentees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Contact | Jiin Park
jiin.park@bmw.co.kr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1월 17일부터 2박 3일 간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4기 참가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BMW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BMW 기본교육은 학생 진로탐색 및 설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그룹 코리아의 기술전문가들이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한부모·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전공분야 및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모터쇼 탐방, BMW 기본교육, 해외 BMW 공장을 방문하는 필드트립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 첫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48명의 멘토와 131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담당자 | 박지인
Jiin.park@bmw.co.kr

British America Tobacco Korea BAT 코리아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On Feb 9, BAT Korea’s employee charity group “Big Love” signed an agreement with seven local charity organizations in Sacheon under the “Making Sacheon Good Place to Live” program to actively assist the underprivileged residents within the region. The group not only pledge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but to increase its annual “Big Love” donations more than four-fold this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BAT Korea’s Sacheon Factory has been conducting a number of activities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area. This year, BAT Korea also plans to launch an extensive scholarship program for the youth in Sacheon to establish itself as a more Sacheon-friendly company.

Contact | Jae Min Lee
jae_min_lee@bat.com

지난 2월 9일, BAT코리아의 자원봉사단체인 ‘한사랑회’는 7개 사천지역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살기 좋은 사천 함께 만들기’ 협약식을 진행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을 돕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BAT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천지역 사회공헌활동을 공식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연간 후원금을 4배 이상 증대해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BAT 코리아는 2002년 공장 설립 이후, 사천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는 가장 지역친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천시와 함께 사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장학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담당자 | 이재민
jae_min_lee@bat.com

Citibank Korea Inc.
(주)한국씨티은행



On January 20, more than 80 student participants from the “Citi-KyungHee University NGO Internship Program” came together to draw t-shirts of hope for child refugees of climate change and disaster. The “Citi-KyungHee University NGO Internship Program,” launched in 2006, provides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to build experience as interns at NGOs and fosters healthy civil society leaders. Now in its eleventh year, the program has sent a total of 976 students to 695 NGOs. The most recent program, which lasted from December 2016 to February 2017, sent university students to 70 NGOs nationwide.

Contact | Seong Jae Lee
 seongjae.lee@citi.com

지난 1월 20일,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80여명의 학생들이 전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를 위한 희망 T셔츠 그리기 활동에 참여했다. 제작된 티셔츠는 전국재해구호 협회를 통해,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주관하는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학생들에게 상근인턴으로 NGO 및 시민단체 활동경험을 제공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면서 시민사회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11주년을 맞는 본 프로그램은 지난 10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총 695개 NGO단체에 976명의 인턴학생을 파견해왔으며,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난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70여 시민단체에서 진행됐다.

담당자 | 이성재
 seongjae.lee@citi.com

Deloitte Anjin LLC.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Starting from last winter to early this year, Deloitte Korea participated in numerous campaigns to support childre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first campaign, otherwise known as the “Making Hand-Knitted Hats for Newborn Babies” campaign, began in 2013 and has helped thousands of newborns maintain and regulate their body temperature. The second campaign is the “Eco-Bag Coloring Campaign” where colorful eco-bags are given to the children as gifts. By taking an active interest in supporting childre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Deloitte Korea pledges to deliver positive values and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rough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Contact | Keunboum Park
 keupark@deloitte.com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은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저개발국가 아동을 위한 캠페인인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과 ‘에코백 색칠하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모자뜨기 캠페인’은 지난 2013년부터 수백 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천여 개의 모자를 완성해 신생아들이 체온을 유지하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참여한 ‘에코백 색칠하기 캠페인’은 ‘꿈’에 대한 주제로 밑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예쁘게 색칠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뜻 깊은 활동이다. 딜로이트 임직원들은 소중한 생명과 학업을 위협받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긍정적인 가치를 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담당자 | 박근범
 keupark@deloitte.com

Dow Chemical Korea 한국다우케미칼



On January 8, Dow Korea participated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Korean Chemistry Olympiad Winter School” at Seoul University. The “Korean Chemistry Olympiad” i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ultivates gifted students in the chemistry field. Dow Korea has been an official sponsor of the program since 2014 and provided support in selecting Korean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the annual 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Dow Korea has also put effort in developing local talent in th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For example, it has hosted various STEM programs and the “Dow Korea Award,” which aims to discover outstanding theses focused on electronic material and chemistry.

Contact | Hyung-Joon Kwon
jasonkwon@dow.com

지난 1월 8일, 한국다우케미칼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 한국화학올림피아드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화학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화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다우케미칼은 2014년부터 ‘한국화학올림피아드’를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 및 교육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다우케미칼은 한국화학올림피아드 후원과 함께 전자소재 및 순수 화학 분야의 우수 논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인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을 진행하는 등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다우케미칼은 창의적인 우수인재 육성 및 화학 분야 저변 확충의 기여를 위해 다양한 STEM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담당자 | 권형준
jasonkwon@dow.com

eBay Korea 이베이코리아



In January, eBay Korea raised over KRW 23 million via its Global G-Market “Give Love” fundraising event for Save the Children,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children’s rights and providing relief to children in need. 32 Korean celebrities donated their personal items to the two-week long fundraising event to be sold for charity. On January 25, it was announced that a jacket by Kim Soo-hyun, a top Korean actor, earned the top dollar amounting to over KRW 5 million won. Fans from over 40 countries also bid on several other items including a dress worn by Korean celebrity and actress Song Hye-kyo and t-shirt worn by actor Park Hye-jin in the Korean drama, “Cheese in the Trap.”

Contact | Ho-Sung Suh
hsuh@ebay.com

지난 1월,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글로벌샵을 통해 진행한 기부 이벤트 ‘기브러브’에서 기부금 23,516,000원을 모아 국제 구호 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전액 기부했다. G마켓 글로벌샵에서 1000원씩 소액으로 스타 애장품 경매에 응모하면 기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중국부터 미국, 독일 등 40개국의 고객들이 참여하여 총 23,516,000원이 모였다. 김수현이 애장품으로 내놓은 패딩은 5,389,000원을 모으며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참여국가 중에서는 모금액 기준으로 중국의 참여율이 32.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고객이 50%에 육박하며 한류열풍을 실감케 했으며, 캐나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영국 등 유럽,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기부금이 모였다.

담당자 | 서호성
hsuh@ebay.com

GE Korea GE코리아



On February 21, GE Healthcare Korea held a three-day training session for 13 students from Korea Bio Meister High School at the GE Life Science Fast Trak Center in Songdo. This tailored training session was a part of an MOU with the high school to foster the growth of students gifted in the biology field. During the session, the students attended lectures and gained first-hand experience in the industry through job training. They also learned about experiment apparatuses for cell culture and protein purification and participated in actual experiments. In hopes to help students find their future career, GE Healthcare Korea plans to expand its academic partnerships and will invest KRW 24 billion in the Center until 2020.

Contact | Hyeri Chung
hyeri.chung1@ge.com

GE헬스케어 코리아는 바이오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2월 21일부터 3일간 송도에 위치한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트 트랙 센터에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업무 협약에 따른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바이오 프로세싱 분야 전문가의 강의·실습·견학 등 바이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세포배양 및 단백질 분리 정제 시스템에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 및 실험들을 교육받음으로써 관련 분야 취업 시 직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 코리아는 센터에 2020년까지 약 240억원을 투자해 향후 한국의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 정혜리
hyeri.chung1@ge.com

GM Korea 한국지엠



On February 14, GM Korea's Changwon plant held a donation ceremony called "Love Changwon with GM Korea." In May 2016, GM Korea signed a MOU with the Changwon Chamber of Commerce and the Changwon Chapter of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Changwon and Shared Growth of GM Korea" program. The funds were raised by donating 20,000 won per sale of a Chevrolet vehicle to the underprivileged resides of Changwon. On this day, the plant also donated KRW 12,982,000 to provide school uniforms for 4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residing in Changwon.

Contact | Gihyun Kwon
gihyun.kwon@gm.com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월 14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지엠과 함께하는 창원사랑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창원 발전과 한국지엠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에서 판매되는 쉐보레 차량 1대당 2만원의 적립금으로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창원사랑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작년 두 차례의 기금전달 행사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전달한 기금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조성된 12,982,000원으로, 창원지역 내 저소득 중·고등학생 45명의 신학기 교복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담당자 | 권기현
gihyun.kwon@gm.com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To support welfare services in Gangnam-gu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donated KRW 100 million to the Gangnam Welfare Foundation operated by the Gangnam-gu Office on January 16.

The funds will be used to assist underprivileged families and youth residing in Gangnam-gu.

CEO Kwon Bung-zu announced that the donation was made not just as a social contribution, but to share and create shared values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Contact | Bong-hyeon Kim
bhkim@parnas.co.kr

지난 1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강남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강남구내 복지서비스 증진과 내실 있는 사회복지 제공에 기여하고자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강남복지재단에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권봉주 대표이사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실현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금액은 향후 강남구 내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담당자 | 김봉현
bhkim@parnas.co.kr

IBM Korea 한국IBM



Every year, approximately 300,000 children are diagnosed with cancer. In addition, 80,000 will die as the result of childhood cancer. To help reverse these statistics, over 850 IBM Korea employees and volunteers are participating in IBM's new research project, "Smash Childhood Cancer" project under IBM's World Community Grid (WCG).

WCG, a philanthropic initiative of IBM, allows anyone with a computer or Android device to download an app and perform virtual chemistry experiences to pinpoint which millions of chemical compounds could be effective treatments for various types of childhood cancer.

Contact | Ji-Hyun Shin
shinjih@kr.ibm.com

매년 전세계 30만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8만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IBM은 올해 1월, '월드 커뮤니티 그리드'를 통해 여러가지 소아암 치료법을 찾기 위한 'Smash Childhood Cancer'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월드 커뮤니티 그리드'는 PC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안쓰이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팅 파워를 모아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하여 인류 복지증진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IBM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단일컴퓨터로 15,000년 동안 소요되는 소아암 종양 성장 억제 연구를 6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에서는 IBM 임직원 및 일반인 약 850명 이상의 기부자가 컴퓨팅 파워를 기증하고 있다.

담당자 | 신지현
shinjih@kr.ibm.com

Ingredion Korea 인그리디언 코리아



Ingredion Incorporated, named as one of the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for eight consecutive years (2010~2017) by FORTUNE Magazine, has participated in a campaign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Afte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s their first CSR project, Ingredion Korea volunteered their services by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who work as the sole breadwinners of their family. In January, they selected one family and renovated their home by replacing the floor, changing the wallpaper, and repairing their veranda. President and CEO of Ingredion Korea, JK Koo, commented that the company will continue its sustainable CSR activities in 2017 and will make an effort to instill a spirit of volunteerism amongst its employees.

Contact I Juliana Mi-Hyang Kim
mihyang.kim@ingredion.com

美 포춘지 선정,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으로 8년 연속 선정된 인그리디언의 한국법인, 인그리디언 코리아는 지난 1월 17일, 부평구청 관할 내의 소년·소녀가정을 선정하여 베란다보수 뿐 아니라, 집안 도배 및 장판 교체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CSR캠페인은 구립 이천에서 실시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지원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조손가정을 위해 보다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인그리디언 코리아 구자규 대표는 2017년에도 지속 가능한 CSR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CSR문화가 내부적으로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I 김미향
mihyang.kim@ingredion.com

Lee & Ko 법무법인 광장



Every year, Lee & Ko's Pro Bono Committee organizes a year-end charity sale to raise fun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In 2016, the Open Door Social Welfare Center and the Heavenly Dream School were chosen as recipients for proceeds made from the firm's Christmas Charity Sale. The Open Door Social Welfare Center provides educational, housing, counseling and therapeutic services for abandoned youth in Yangpyeong and Chungju. The Heavenly Dream School is an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refugees. As organizations that received legal assistance and education in the past, Lee & Ko has expanded the scope of its contribution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scholarships to the youth served at both institutions.

Contact I Seok-Pyo Hong
seokpyo.hong@leeko.com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6년 말에 진행된 크리스마스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을 청소년 쉼터 열린문청소년재단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에 전달했다. 광장은 매년 연말, 바자회를 진행하여 변호사 및 직원들이 기증한 물건의 판매대금과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해왔으며, 올해 열린문청소년재단과 하늘꿈학교 학생들의 지원 및 장학금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 열린문청소년재단은 양평과 충주에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호·상담 및 치료사업을 하고 있으며, 광장은 기존의 법률지원에 더하여 재정후원까지 진행했다. 또한 광장 변호사들은 하늘꿈학교를 위해 매월 법률교육 및 상담을 진행해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기부했다.

담당자 I 홍석표
seokpyo.hong@leeko.com

Lilly Korea
한국릴리



On January 21, the volunteer club of Lilly Korea, otherwise known as “Heart,” organized a coal briquette delivery service for Gu-ryeong Village with the non-profit organization “Coal Briquettes for Neighbors in Korea.” 25 Lilly Kore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delivered 1,000 coal briquettes to the low-income residents in Gu-ryeong Village. These coal briquettes were funded by personal donations by the Heart members, in hopes that the residents could stay warm during the cold winter. Heart is one of the biggest clubs in Lilly Korea and has conducted several volunteer service projects for the last three years. Last year, Heart donated funds to the Korean Children Leukemia Foundation in addition to purchasing coal briquettes for other low-income neighborhoods.

Contact | Kisun Lee
lee.kisun@lilly.com

지난 1월 21일, 한국릴리의 사내 봉사동호회 ‘Heart’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본부와 함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25명의 한국릴리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직원들이 마련한 기부금으로 연탄 1,000장을 구입하여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배달하였다. 지난해에는 동호회에서 자발적인 기부금을 마련하여 일부는 연탄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치료비로 기부하기도 했다. ‘Heart’는 한국릴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내 동호회로, 올해로 3년째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 | 이기선
lee.kisun@lilly.com

McDonald's Korea
한국맥도날드



On February 23, McDonald's Korea received the Community Contribution Grand Prize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from “Happy Plus CSR Awards”, which is organized by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and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ists. McDonald's Korea has been consistently implementing various CSR programs including the “Happy Burger Campaign,” “Ronald McDonald Children's Soccer Club” and the “Ronald McDonald House (RMH)” to promote children's welfare by funding Ronald McDonald House as a “Korea RMHC” sponsor. The first RMH of Korea is currently being built to provide comfort to families of seriously ill or injured child patients who need long hospital stays. It will open at Yang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Yangsan, Gyeongnam in this year.

Contact | Woo-Sik Jin
WooSik.Jin@kr.mcd.com

지난 2월 23일, 한국맥도날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 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지역 사회공헌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맥도날드는 ‘행복의 버거 캠페인,’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 축구교실’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RMHC’의 후원사로서 장기치료 환아와 가족들이 병원 근처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건립 후원 등을 통해 어린이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국내 1호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는 올해 경남 양산에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문을 열 예정이다.

담당자 | 진우식
WooSik.Jin@kr.mcd.com

Medtronic Korea 메드트로닉코리아



Starting in February, Medtronic Korea developed a new matching funds program called the “Miracle of 300” campaign. Each month, employees will donate KRW 5,000 and the company matches the amount. The amount of KRW 3,000,000 is then sent to the Korea Heart Foundation to save a child per month. As a result, 12 children is saved per year. Medtronic Korea’s top priority is to contribute to human welfare. This priority guides their day-to-day work and remind employees that their work is transforming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Medtronic Korea will continue to run its CSR activities to maintain good corporate citizenship as a company.

Contact | EunKyo Park
eunkyo.park@medtronic.com

메드트로닉은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6가지 미션을 제정·실천하고 있으며, 이 미션들은 직원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6번째 미션에 해당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매칭펀드 방식의 기부 프로그램인 ‘300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매달 300명의 직원이 5000원을 기부할 때, 회사의 기부금과 합쳐져 총 300만원의 기부금이 모여 아이 한 명의 심장수술비가 마련된다. 기부금은 심장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의 수술 비용을 위해 매달 한국심장재단에 전달되고 있으며, 1년간 총 12명의 아이들이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박은교
eunkyo.park@medtronic.com

MetLife Korea 메트라이프생명



In 2016, MetLife Korea launched the “MetLife LuV” program that encourages employees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activities during their lunch break. On February 17, around 40 employees made eco-friendly lockers for the Minyoung Community Children’s Center in Gwanak-gu. The lockers, made out of wooden material, were built without the use of harmful substances that could potentially harm the childrens’ learning environment. The lockers also help the children develop healthy habits of tidying up. MetLife Korea will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employee activities.

Contact | Sung Wook Park
spark42@metlife.co.kr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에도 임직원들이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MetLife LuV’ 프로그램을 2016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 진행된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원목 사물함을 4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다. 만들어진 사물함은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정리정돈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관악구에 위치한 ‘민영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되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MetLife LuV’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담당자 | 박성욱
spark42@metlife.co.kr

New Wrap Co. (주)뉴랩



Newwrap Co., Ltd., a hidden champion in the food wrapping material business, carries out activities to fulfill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return profits gained from society. On March 8th,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visited the Eunbit Senior Care Center,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in Icheon. They took part in several volunteer activities including taking the residents out on strolls, spending time with them, and cleaning their facilities. They also donated snacks and household items to the elders. This activity was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 Newwrap Co., Ltd. Employees considering today's aging population. Newwrap pledges to expand its CSR activities by continuing its volunteer activities and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Contact | SongYi Han
songyi82@gmail.com

식품포장재 강소기업 (주)뉴랩은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미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임직원들은 이천시 소재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은빛사랑채 보호센터'를 찾아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으며, 실내청소 및 정리 등을 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주)뉴랩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한송이
songyi82@gmail.com

Nike Korea LLC (유) 나이키 코리아



On January 19, 23 employees of Nike Korea LLC kicked off the New Year by delivering 2000 coal briquettes to the elderly of the Namtaeryeong region.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Nike Volunteer Project," a group ran by Nike Korea LLC employees dedicated to helping those in need. This year's Namtaeryeong project was supported with profits from the "Nike's Flea Market," where Nike Korea LLC employees sold and traded their personal items. As a brand that promotes energy and inspiration, Nike Korea LLC is committed to finding ways in improving society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employees to actively volunteer.

Contact | SangMi Hwang
sangmi.hwang@nike.com

지난 1월 19일, 23명의 나이키코리아 임직원은 남태령 전원마을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게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사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이키 지원봉사 프로젝트'에서 매해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는 사내 물품 나눔 프로그램인 '나이키 플라마켓'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진행되었다.

나이키 코리아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 황상미
sangmi.hwang@nike.com

Nu Skin Korea
뉴스킨 코리아㈜



On March 3, Nu Skin Korea participated in World Vision Korea's "Meal Box for Those in Need Sharing Activity." Nu Skin Korea employees and distributors hosted this program on the first Thursday of every month at the World Vision Seongnam Social Welfare Center. Through this project, Nu Skin Korea donates funds that provide 2,000 meal boxes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disabled, and the elderly. In fact, the "Meal Box for Those in Need Sharing Activity" is being expanded to Busan and other cities in Korea so more Nu Skin Korea distributors may participate. Distributor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said, "It was a very meaningful time, and I want to participate whenever I have an opportunity." Since 2006, Nu Skin Korea has participated in World Vision Korea's "Meal Box for Those in Need Sharing Activity" and will continue to donate funds under the mission of "Force for Good."

Contact | Misun Jang
msjang@nuskin.com

지난 3월 3일, 뉴스킨 코리아는 한국 월드비전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성남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뉴스킨 코리아는 결식아동 및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위한 약 2,000개의 도시락 제작 비용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지역을 부산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뉴스킨 코리아는 앞으로도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라는 사명 아래 후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자 | 장미선
msjang@nuskin.com

Oakwood Premier Coex Center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



On February 16, Oakwood Premier Coex Center donated second-hand linen and uniforms to the "Yonsei Silver Care Center," a senior residential facility in Gyeonggi-do. Shim Yeong-cheol, the general manager of the Oakwood Premier Coex Center, has pledged that hotel chain will continue to donate its linen and uniforms, previously used for its hotel facilities, to community relief centers such as child welfare and senior residential facilities.

By organizing such charity events and making regular contributions to the local community, the Oakwood Premier Coex Center hopes to bring hope and courage to its neighbors facing hardships and difficulties in life.

Contact | Ah-rom Lee
opccpr@oakwoodpremier.co.kr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 센터는 지난 2월 16일 경기도 노인주거시설인 "더 연세실버전문요양원"에 호텔 페린넨 및 의류를 기부했다. 호텔 객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침구용 린넨은 세탁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더 이상 객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 센터는 이렇게 매해 발생하는 페린넨들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심영철 총지배인은 린넨과 구 유니폼 등을 지역 구호단체와 아동양육시설, 노인 주거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며, 더불어 정기적으로 자선행사 개최해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 이아름
opccpr@oakwoodpremier.co.kr

Oracle Korea Ltd.
한국오라클유한회사



On December 23, 2016, Oracle Korea hosted “Be-Oraculus” Christmas event at SongJukWon Daycare facility in Eunpyeong-gu. On this day, 50 Oracle employees “became Santa Claus” and brought personalized gifts to the children at the facility. Not only did the childrens’ faces light up at the sight of these gifts, but they enjoyed doing numerous activities and playing games with the employees as well. In addition, the employees also cleaned the facilities to spread Christmas cheer. Oracle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SongJukWon Daycare facility and other CSR activities in the future.

Contact I Hyokee Min
hyokee.min@oracle.com

지난 2016년 12월 23일, 한국 오라클은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송죽원을 방문하여 ‘Be Oraculus’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직원 50여명은 산타클로스가 되어 시설을 청소하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전에 50여명의 아이들로부터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받은 후 산타클로스 직원들이 예쁘게 포장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함박 웃음꽃이 피어났고, 매서운 겨울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분위기로 봉사활동은 마무리 됐다. 오라클 코리아는 앞으로도 아동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봉사를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자 I 민효기
hyokee.min@oracle.com

Pfizer Korea
한국화이자제약



In March, Pfizer Korea provided the “2017 Pfizer Scholarship” to the Partners for Future Found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the “Pfizer Scholarship”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by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gifted students. The scholarship is funded by the donations of employees via a matching fund system. Pfizer also sponsors additional activities such as the “Healthy Ageing” campaign, “Happiness for GPDC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Families)” campaign,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chievement Award” created by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a “Pfizer Medical Research Award,” to contribute to communities as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s.

Contact I Bo-young Kwon
Bo-Young.Kwon@pfizer.com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3월 미래의 동반자 재단에 ‘2017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은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후원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2002년부터 16년째 지속되고 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후원과 회사의 1:1 매칭 펀드를 통해 매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중 우수한 인재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화이자제약은 오는 4월에 진행될 ‘국제협력공로상’ 후원을 비롯해 ‘조손 가정 행복 만들기’ 캠페인, ‘화이자 의학상’, ‘헬시에이징(Healthy Ageing) 캠페인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담당자 I 권보영
Bo-Young.Kwon@pfizer.com

Qualcomm Korea 퀄컴 코리아



On January 19, Qualcomm Korea hosted a ceremony to announce the winners of the Women Enhancing Technology (WeTech) Qualcomm Global Scholars Program Award to support female studen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industries. This year, a total of 13 female students were selec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and Soongsil University. In addition to receiving a scholarship, each student is matched with a Qualcomm mentor over a six-month period, giving them an important opportunity to gain academic experience and professional skills. Winners also learn about the company's STEM activities, tour the official Research and Design lab, and participate in team-building activities with their Qualcomm employee mentors.

Contact | Karen Oh
kareno@qti.qualcomm.com

지난 1월19일, 퀄컴 코리아는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 (STEM) 분야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위테크(WeTech) 퀄컴 글로벌 스칼라 프로그램' 어워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수여식 이후 퀄컴 R&D 연구소를 방문, STEM분야 육성을 위해 퀄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견학하고 퀄컴 멘토단과 팀워크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는 이화여대·숙명여대·한양대·숭실대 등 4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전공 여대생을 대상으로 총 13명의 학생이 최종 선발 되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금과 함께 6개월간 퀄컴 멘토들과의 멘토링 및 학업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담당자 | 오경은
kareno@qti.qualcomm.com

RGA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Korea RGA 재보험 한국지점



On February 10, RGA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Korea collaborated with The Dining Community Briqueetting Banks, a non-profit organization committed to bettering poor, urban areas in Korea. Despite the cold weather, they delivered coal briquettes to low-income neighborhoods in Seoul. As RGA Korea's first CSR activity of 2017, RGA employees spread warmth not only to each other but to their neighbors living in the underdeveloped communities.

Contact | Liz Shin
Liz.Shin@rgare.com

지난 2월 10일, RGA 재보험 한국지점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성북구 솔샘로 길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기온으로 예보된 날씨가 무색할 만큼, 봉사활동에 참여한 RGA 임직원들은 차가운 공기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여러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상생'의 의미처럼, RGA 임직원들은 힘차게 서로를 북돋우며 연탄 나눔을 통해 직원들 간의 마음은 물론 이웃간의 마음도 함께 이어주는 따뜻한 2017년의 첫 CSR 행보를 열었다.

담당자 | 신실
Liz.Shin@rgare.com

Seacret Direct Korea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SEACRET™

Seacret Direct Korea sponsors “Youngnae,” a project aimed to support creative youth in Korea. The project hosts two major events during the year: an art contest which provides emerging artists with a platform to showcase their works through exhibit competition and a musician contest that showcases performances by young musicians. On February 23, “Youngnae” held a year-end event at Indigo Place to announce the Top 3 winners of the musician contest. Seacret Direct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Youngnae” and provide youth with more opportunities to pursue their dreams.

Contact | HyeMin Lee

HyeMin.Lee@seacretdirect.com

지난 2월 23일, ‘젊은나래’의 2016년 성과발표 및 청년 뮤지션 TOP3 시상, 서포터즈 해단식이 건대 인디고 플레이스에서 진행됐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후원하는 ‘젊은나래’는 2015년 11월 발족을 시작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청년 아티스트 공모전’을 열어 경제적 문제, 전시 공간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아티스트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반기에는 ‘청년 뮤지션 콘테스트’로 공연 무대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젊은나래’는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 이혜민

HyeMin.Lee@seacretdirect.com

Teach North Korean Refugees Global Education Center (TNKR)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



On February 25, the Teach North Korean Refugees Global Education Center (TNKR) held its 5th Bi-annual English Speech Contest featuring North Korean refugees in front of a sold-out crowd of 130 attendees. Before a panel of three judges that included AMCHAM’s John Schuldt, seven refugees told their stories of “That Moment: My Escape from North Korea.” TNKR has connected 273 North Korean refugees with 569 volunteer tutors through 1:1 coaching and mentoring since being co-founded by Casey Lartigue (American) and Eunkoo Lee (South Korean) in 2013. North Korean refugees urgently need English to be successful in a highly competitive South Korean society. The contest was hosted by the Shin and Kim law firm and sponsored by The Korea Times and KDB.

Contact | Casey Lartigue, Jr.

CJL@post.harvard.edu

지난 2월 25일, 제5회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 영어 말하기대회가 130여명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열렸다. 암참 존 숄트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심사위원 앞에 선 탈북민 7명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That Moment)’에 대한 각각의 사연을 영어로 이야기했다. 본 행사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주최로 열렸고, 코리아 타임즈와 한국 산업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TNKR은 2013년부터 273명의 성인 탈북민들에게 1:1 영어교육 멘토링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569명의 원어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TNKR과 함께 하고 있다. TNKR은 이러한 영어교육 지원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자 | 케이스 라티그

CJL@post.harvard.edu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한국뉴욕주립대학교



On February 22, freshman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Korea participated in a university-organized community service day. More than 100 students visited four community centers in the Incheon region: the Korean Red Cross, Incheon Sakhalin Refugee Welfare Center, the House of Gwangmyeong, and the House of Seong-eun. A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they prepared lunches, baked bread for the residents, and assisted the elderly. On this day, students truly represented SUNY Korea's slogan of "History Makers. We Change the World" by helping others.

Contact | Joy Sohn
joy@sunykorea.ac.kr

지난 2월 22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득시키고자 '지역봉사의 날'을 지정하고, 2017 봄학기 신입생들과 함께 지역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신입생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인천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광명의 집, 성언의 집을 방문했다. 전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신입생들은 점심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빵을 만들어 지역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어르신들을 돕고 말동무를 해드리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새내기 신입생들은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돕는 일군으로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History Makers. We Change the World"

담당자 | 손미향
joy@sunykorea.ac.kr

UPS Korea
UPS 코리아



UPS employe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in various "Neighbor to Neighbor" activities to give back to society. On February 25, UPS Kore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visited Global Village Love Sharing,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upports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migrants in Korea. The UPS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happily volunteered by not only cleaning the food service center, but prepared food to distribute to migrant families in Korea.

Contact | Sunny Choi
csunghee@ups.com

전 세계의 UPS 임직원들은 다양한 'Neighbor to Neighbor (이웃 대 이웃)'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UPS 코리아의 직원 및 가족들은 국내 이주민들의 인권신장과 복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사)지구촌사랑 나눔'을 찾아 무료 급식소에서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을 위한 급식소 청소와 음식 재료 준비 및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음식은 이웃들의 심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담당자 | 최성희
csunghee@ups.com

Yoon & Yang LLC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LC and Yoon & Yang ProBono Foundation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Phnom Penh Animal Welfare Society (PPAW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ims to improve animal welfare in Cambodia. In May 2014, PPAWS entered a contract with a Korean company to purchase a mini bus for its abandoned animals rescue services. Though a deposit was made, the non-profit failed to receive the bus. Yoon & Yang assisted PPAWS by filing a claim and seeking restitution of the deposit. On February 16, 2017, the court case was successfully won and the deposit was returned.

Contact I Bo Hyun Ham
hbh@yoonyang.com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들이 국내 대형로펌으로는 이례적으로 해외 소규모 NGO를 대리하여 승소했다. 사건 피해자이자 원고인 캄보디아의 작은 비영리민간단체 프놈펜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PPAWS)는 유기동물 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로, 유기동물 치료에 필요한 물품(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수출업체 K사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화우의 도움을 받아 K사를 상대로 차량구입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PPAWS를 대리한 화우공익재단과 화우의 황현주 변호사, 최정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간 꾸준히 공익소송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16일, 한국 무역업체K를 상대로 차량구입 계약금반환 청구를 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PPAWS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했다.

담당자 I 함보현
hbh@yoonyang.com

Yulchon LLC 법무법인(유) 율촌



Attorneys at Law
YULCHON

Every year, Yulchon LLC employees volunteers its services at Eunhye Dongsan, a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The community service club of Yulchon LLC, otherwise known as Miral, has consistently conducted monthly donations to the facility for the past several years. In January, eleven members from Miral and the Onyul Foundation, including Chairman of the Onyul Foundation, Soh Soon-Moo and Yulchon Partners Park Hae-sik and Jang Young-ki, visited the facility. Bearing gifts for the residents, they hoped to spread good luck and cheer for the upcoming Lunar New Year.

Contact I Jeewon Choi
submission@yulchon.com

사단법인 온울과 율촌 봉사동아리 '밀알'은 매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은혜동산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밀알'의 구성원들은 매월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으로 은혜동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사단법인 온울과 '밀알'은 설날을 일주일 앞둔 1월 21일에 은혜동산에 방문하여 준비한 선물들을 제공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단법인 온울 소순무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박해식 대표, 장영기 변호사 등 사단법인 온울과 '밀알' 회원 등 11명이 함께 참여했다.

담당자 I 최지원
submission@yulchon.com



Share Your CSR Activities with AMCHAM Journal Readers!

To promote your company's CSR activities in the AMCHAM Journal, please email a short description of your recent CSR program (in both English and Korean) with a **photo** and a **company logo** to Nahyun Kim, Chief Editor of the AMCHAM Journal (nahyun@amchamkorea.org / 02-6201-2238) by June 9, 2017.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하세요!

귀사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저널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다면, 최근 진행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국영문)를 행사 사진 및 귀사 로고와 함께 2017년 6월 9일까지 nahyun@amchamkorea.org로 보내주세요.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널 편집장인 김나현 대리에게 02-6201-2238로 연락 바랍니다.



AMCHAM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Korea) was founded in 1953 with a broad mandat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CHAM is the largest foreign chamber in Korea with around 1,800 individual members from around 900 member companies with diverse interests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economy. AMCHAM Korea celebrated its 60th anniversary in 2013. To find out more about AMCHAM, please visit our website: www.amchamkorea.org.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900여 개의 기업 소속 1,800여 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참은 2013년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암참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웹사이트 참조: www.amchamkorea.org.



Partners for the Future Foundation 미래의동반자재단

Established in February 2000, Partner for the Future Foundation (PFF) is the charity arm of AMCHAM Korea whose purpose is to improve the lives of Korean citizens by ensuring that all have opportunities for meaningful employment. The Foundation provides assistance in the form of college scholarships and vocational training to help people find employment opportunities. PFF is maintained through contributions from multi-national and Korean companies and individual sponsors; it has raised over \$13 million and provided scholarships to over 2,000 Korean students since establishment as of December 2013. The Foundation provides various partnering opportunities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for companies interested in charitable giv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822-6201-2251/2.

미래의동반자재단(이하 재단)은 국내 실업자 및 실업가정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 2000년 2월에 설립한 비영리 자선재단입니다. 재단은 장학금과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장을 잃은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자립심과 삶의 희망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천삼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하여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재단은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 시키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협력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822-6201-2251/2로 연락 바랍니다.